

부활주일/2019년 4월 21일(일)

행전: 사도행전 10,34-36

서신: 고린도전서 15,19-26

복음: 요한복음 20,11-18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는 날

부활신앙은 죽음 그 자체의 극복만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인 죄의 멸망 사건(event)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활신앙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집단적으로는 악의 지배를 받는 세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부활신앙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죽음과 함께 삶의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믿음, 죽어야 산다는 믿음이지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죽음과 함께 태어난다는 믿음입니다. 죄가 몸을 지배하듯이, 죄는 언제나 우리 몸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이 정욕(Begierden)에 굴복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롬 6,12). 우리의 몸이 불의의 연장(다른 사본은 무기)이 아니라 의의 연장(무기)이 되게 하는 힘이지요(롬 6,13). 또한 죄인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활신앙을 그리스도의 재림신앙과 결합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구적 심판 사건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가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고전 15,24).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고(행 10,36),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 모든 통치

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마땅히 긴장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악마도 긴장할 것입니다(눅 4,5-7). 지상에 있는 그들의 나라와 그들이 누리는 권력과 영광이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입니다(계 21,1). 부활신앙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 모든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롬 8,22). ‘새 생명’을 낳는 고통 없이 ‘새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fact)에 대한 개인적 믿음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은 개인적, 역사적, 우주적 차원에서의 구원사건입니다. 죽음으로 통칭되는, 맨 마지막으로 멸망 받을 원수인(고전 15,26)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없는 부활신앙은 절반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하나님은 고통 받는 모든 이들과 친히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에게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를 예비하실 것입니다(계 21,3-4,8).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군가에는 구원이,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미움 받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에게(눅 6,20-2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쁨이자 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요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듣는 사람들에게(눅 6,24-26)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은 화이자 심판입니다.

부활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침묵시킬 수 있다고 믿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Nein)입니다! 부활은 가짜뉴스로 민중을 영원히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Nein)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억울하게 죽어 땅에서 울부짖는 아벨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Ja)입니다! 부활은 마땅히 정의를 말해야 할 사람들이 침묵하는 곳에서 소리지르는 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Ja)입니다!(눅 19,40).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위와 통치를 폐하실터이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계 22,20).

<설교 후 기도>

부활하셔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며,
주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 주님(사 25,8),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위와 통치를 폐하시고,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 세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바친 손길마다 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2019년 새 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품에 안긴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호명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은 크신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과
살아 있는 성도들의 교제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김종순 성도(향년 87세/ 2019년 1월 10일 소천)
서이순 집사(향년 81세/ 2019년 1월 16일 소천)
김재성 장로(향년 98세/ 2019년 1월 26일 소천)
김우홍 권사(향년 94세/ 2019년 1월 30일 소천)
김재영 장로(향년 91세/ 2019년 2월 6일 소천)
곽순의 권사(향년 90세/ 2019년 2월 8일 소천)
김옥련 권사(향년 88세/ 2019년 2월 소천)
이상윤 장로(향년 95세/ 2019년 3월 3일 소천)
곽옥자 권사(향년 93세/ 2019년 3월 7일 소천)
정공순 성도(향년 86세/ 2019년 3월 16일 소천)
정정자 집사(향년 91세/ 2019년 4월 4일 소천)
배석균 목사(향년 68세/ 2019년 4월 7일 소천)
김순예 성도(향년 82세/ 2019년 4월 12일 소천)
이명근 집사(향년 63세/ 2019년 4월 15일 소천)

그리고 고인의 이름과 함께 꽃을 바친 유족과 고인을 은혜로 기억하시옵
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잠든 우리 모든 가족과 신앙의
조상들은 하나님 품에서 아직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터이니, 이들의 믿음과 기도를 힘입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롬 6,4).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
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요 5,24)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간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복하시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요 5,2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